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새고려신문</h1>	<p>2017년 7월 14일(금) (음력 윤 5월 21일) Пятница 14 июля 2017 г. № 27(11674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섬>체호브의 책 문학예술박물관이 <체호브의 소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한 달에 두 번(목요일마다)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마차를 탈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와 관람도 할 수도 있다.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브와의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체호브의 작품 페이지를 따라>탐색프로그램, <시간의 갈림길> 소공원 파에톤(마차) 여행 프로그램, <체호브의 경로도>문답게임, 사할린 마스터들의 공예품 박람회, 그리고 추억의 사진찍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재: 이에식기자)

단신

주지사, 일본 총영사와 일본 경제사절단 쿠릴방문 결과 논의

지난 11일(화) 사할린주정부에서 만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와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쿠릴섬 공동경제사업의 일환으로 다방면의 협력방안에 대해 일본 경제사절단이 내린 결과를 논의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쿠릴섬 등에서 공동경제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 실행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3주 전쯤 일본의 경제사절단은 사할린주의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 섬들을 방문하여 교통, 에너지, 관광, 상업, 수산업과 보건분야 등 10개 분야의 제반시설구축의 대상을 시찰하고 러시아 기업인들과 만난 바가 있다.

이날 코제마코지사는 올 9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사할린. 스파스카야 탑>국제관악제 참가에 대한 제안을 일본 측에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수리 중인 주택단지 내 구역들 점검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택단지 내 93개 구역들을 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은 몇몇 주택단지를 찾아 수리현황을 점검한 가운데 제반시설의 교체, 거리 조경과 주택단지 내 구역 개건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과의 의논해가며 추진해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로마노브,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장 대행으로 부임

7월 12일부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 시장 대행을 테무르 미로마노브가 수행하게 되었다.

그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다가올 난방시기를 준비하고, 구역 행사들의 예산 분석, 학교 및 유치원 신학년도 준비문제 등이다.

이전까지 미로마노브는 29년 동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체호브와 사할린>역사문학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다가 1년 전에 주향토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현재 향토박물관의 새로운 관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3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 캠프 개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주한인회와 주한인노인회가 공동주최로 제3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 캠프를 연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역사캠프는 사할린 한인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사할린한인사를 알려주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번에 돌린스크, 비코브,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코르사코브,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에서 약 20명의 학생들이 야스노모르스크에 휴양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프로젝트 담당자는 사할린주노인회 회장 겸 주한인회 부회장인 김홍지 씨다.

주지사, 체호브마을 주민들과 만났다

지난 11일(화)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가 체호브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2년 전 코제마코 주지사가 처음으로 체호브를 방문했을 때 주택공공경리, 보건분야와 공공교통 등의 분야에서 문제들이 심각했으나 이후 체호브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많은 주택단지 내 지대가 정돈되고 8개의 아동 및 스포츠를 위한 운동장이 설치되었고 거리의 조경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아동예술학교가 개교되고, 목욕탕도 재개되었고, 현지 일반학교에는 새로운 울타리도 생겼고, 야외 스포츠 시설도 정비되었다. 주택수리도 이루어지고 있고 난방보일러들의 새 장비도 계속 설치되고 난방관, 수도관 교체도 하고 있다. 2018년에 주택단지 내에는 새 수도 공급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미결된 문제들로 체호브에서 홈스크까지 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적으로 버스 2대가 체호브-홈스크 구간에서 운행함으로써는 부족함을 토로했다. 버스운행시간의 변경도 요청하고 체호브-홈스크 구간의 열악한 도로상태 또한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주지사에게 얘기했다.

주지사는 2019년까지 아블로츠노예-피오네리간 15킬로미터의 도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만남에서 여러 문제들이 올랐다.

주지사는 체호브 마을과 같이 10년간 주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마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특별지원법안을 상정해야 함을 언급하고 현재 확보된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되었으며 앞으로 홈스크 자치체는 주민들과의 잦은 논의 속에 계획을 추진시켜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자료에서)

동탄 라이온스 클럽, 사할린한인 지속 지원

지난 7월 8일-11일 3박4일 일정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354-B(경기)지구 동탄라이온스클럽 김도수 회장과 강석철 재무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연수원 최창수 교수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동탄 클럽은 사할린가가린 라이온스 클럽(회장 천영근)의 후원 클럽으로서 사할린에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두고 심의했다. 또한 동탄클럽 관계자들은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만나 한인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지난 9일(일) 동탄 클럽 김도수 회장, 강석철 재무, 최창수 교수, 사할린가가린 라이온스클럽 강송희 이사 등이 새고려신문을 방문해 동탄라이온에서 민족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고려신문을 돕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했다. 배 워토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은 뜻밖의 소식에 놀라워하며 김도수 회장을 비롯한 동탄 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다리를 놓아준 강송희가가린 라이온스 이사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본사기자)

<h2>새고려신문</h2>	<h2>2017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 사할린 방문

지난 6일-11일간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와 김만연 부총재가 사할린을 다녀갔다. 이들은 첫 사할린유소년격투기경기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경기에 앞서 국제당수도연맹 대표단은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와 만남을 가졌다. 코제마코 지사와 남인도 총재는 사할린에서 당수도무술학교 설립, 당수도를 비롯한 문화, 경제교류 등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제마코 지사는 "총재님의 사할린방문은 국제당수도연맹과 사할린주 스포츠단체들 간의 관계협력에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사할린 땅에서 새 스포츠 종목이 생기는 것을 환영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술은 경쟁심을 북돋아 주고 정신과 의지를 강하게 하며,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술은 사할린과 쿠릴에서 인기가 많아 격투기 선수들은 섬지역에서만 아니라 국내와 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주지사가 덧붙였다.

남인도 총재는 "대한민국 경찰청 인증 무예인 당수도를 통해 민족 무예 전파뿐만 아니라 치안한류의 전파를 위해 경찰청의 국제협력과 러시아 주정부 등 관계기관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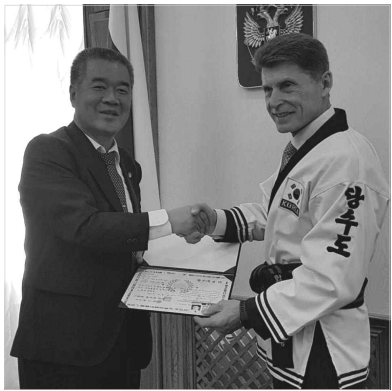
남인도 총재는 코제마코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당수도 명예단증(8단)과 공인도복, 당수도 한민족 무예 교본을 수여 및 기증하고 주지사를 당수도연맹 국제상임고문으로 추대할 걸로 알려졌다.

한편 당수도는 태권도의 옛 명칭으로, 1945년 해방 후 당수도 무덕관, 청도관, 송무관이 만들어 졌으나 훗날 태권도 무덕관, 청도관, 송무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59년 최홍희 육군소장이 태권도로 명칭 통합을 추진하여 태권도는 국기(國技)로 정해졌다. 1965년 8월 대한태권도협회가 출범하면서 전통무예 당수도와 스포츠태권도로 분리 발전해 왔다.

국제당수도연맹 설립(1985)자인 남인도 총재는 당수도 보급에 30여년을 바쳐왔다. 현재 당수도는 한국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 발전돼 있다.

남총재에 따르면 세계 80개국에 1000만 명이 당수도를 하고 있다. 올해 당수도를 러시아 사할린에도 보급한다. 사할린에서는 천 알렉세이(본명 천영근)씨가 러시아 극동 당수도협회 회장이 되었다. (배순신기자)



제1회 <사할린의 여름>유소년 격투기경기 개최

지난 8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첫 유소년 격투기경기가 이뤄졌다. 이날 격투기 종목으로는 킥복싱, 종합격투기(MMA), 태권도(MFT), 자유형 카라테, 등 하여 총 4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오스트로브> 사할린주무술협회(회장 천영근), 유즈노사할린스



크시 <오스트로브>무술학교(관장 안수학)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후원 아래 이뤄졌다.

이날 경기 개막식에 많은 내빈들이 빛내주었다. 특히 경기에 특별 손님으로 당수도 10단인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가 참석했다.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세르게이 부렌코프 장관은 내빈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러한 축제의 진행은 사할린에 격투기 종목 기술의 대중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사할린연맹과 국제연맹과의 상호작용과 긴밀한 협력에 힘입어 격투기 선수들이 증가하고 한국에서 온 선수들과의 만남도 가능했고 공동훈련교육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제격투기연맹 남인도 총재는 사할린에서 격투기 종목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 흥미로움을 전하며 어린 선수들의 높은 수준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행사참가자들을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도 환영하고 <사할린의 여름> 유소년 선수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이날 사할린에서 태권도 설립자로 잘 알려진 민태출 전 태권도협회장의 시범도 있었다. 킥복싱, 태권도, 카라테 등 어린 선수들의 즐거운 시범판도 이뤄졌다.

이번에 치러진 격투경기에서 남인도 총재,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과 우승자들에게 기념품과 메달,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국제당수도연맹 측과 사할린격투기 스포츠단체 장들이 감사패와 기념품 교환이 있었다.

향후 유소년 격투술 경기는 매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사할린뿐만 아니라 타지의 스포츠맨으로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는다고 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관계자가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국 광주시와 협력 전망

지난 8일(토) 사할린을 방문한 국제라이온스클럽 연수원 교수인 최창수 씨가 광주시 조역동 시장의 특사로 지난 1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를 찾아 알렉세이 프리츠크 부시장 대행인 행정실장과 만났다.

이들은 올 9월 9일 펼쳐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행사에 광주시 대표단의 참가 내용을 논의했다.

만남에는 사할린주경제발전부 제1아시아국 한 드미트리 국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천 알렉세이 사할린 가가린 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대표단 방문할 때 양도시 간 우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본사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처음 유목축제 개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사할린주에서 처음으로 <매혹적인 세계들. 원주민적 러시아>유목축제가 개최된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러시아 민족문화유산들을 널리 보급하는 데 있다.

이 같은 기획은 저마다 독특한데 러시아 북방소수 민족 원주민들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유목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개된 민족 생활방식과 합치된 축제형식으로 국내 지역들과 도시들마다 유목축제가 진행된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12년간 300여 민족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축제는 러시아의 87개 도시와 촌, 독립국가연합의 5개 도시와 중화인민공화국 4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사할린에서 축제 프로그램은 주 내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원주민들의 문화는 소수민족 공연, 전통수공예 전시회, 사진전, 상호작용 창작 교실 등으로 소개된다. 민족 본래의 방식에서부터 현대적인 방식까지 민족문화의 폭넓은 예술적 수단들이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매혹적인 세계들. 원주민적 러시아>축제는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사할린의 유목축제는 민족예술지원 문화фон드(모스크바)와 사할린주 민족창작센터가 주최한다.

자세한 정보는 8 (4242) 72-20-40로 알 수 있다고 주민창작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ведут кочующий фестиваль

С 8 по 24 авгус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кочующий фестиваль "Манящие миры. Этническая Россия". Целью 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анный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в своем роде.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тране кочующий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традицион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Севера. Его формат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бразу жизн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родов — фестиваль кочует по городам и селам страны. За 12 ле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0 этн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 Фестиваль побывал в 87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ках России, 5 городах СНГ и 4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КНР.

Фестив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 Сахалин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14 мероприятий в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этническими концертами, выставками традиционных ремесел,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лабораториями. Зрителю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широчайшая палитра этн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от аутентичных форм до современных.

Фестиваль "Манящие миры. Этническая Россия"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естиваля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культурный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кусств

(Москва) 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72-20-4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ЦНТ.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아동들 치료에 2만여 루블리 모금

지난 7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동계스포츠중학교 스키롤러 트랙에서 진행된 <스포츠가 생명을 구한다>자선행사의 참가자들이 아동환자 치료에 2만여 루블리를 모금하게 되었다.

위탈리 김(3세)과 안톤 아르샤노브(4세)를 위한 모금이었다. 위탈리는 뇌성마비와 경련성 뇌신경조직 손상을 앓고 있다. 2016년 10월에 그는 <프레오돌레 니에(극복)>재활청소년센터와 중국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가족은 다시 중국으로 가 재활치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안톤 아르샤노브는 뇌성마비로, 오른쪽 뇌수막 마비 증상을 앓고 있다. 의료진들은 아나과(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에서 돌고래 심리교정치료를 권하고 있다.


사할린주 두마의원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국가지원이 있긴 해도 때로는 국내 병원들이 정한 치료를 어느 정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원은 아동환자 중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환자를 위한 주예산 외 지원фон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주지사에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8면에 계속)

재외동포재단,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최

48개국 132명 한글학교 교사 초청, 17일부터 7박 8일 간 용인 한국외대서 진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7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7박 8일간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총 48개국 132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첫 날인 17일,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글학교 교사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진 후 공식적인 연수 일정을 시작한다.

연수 기간 참가자들은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반으로 나뉘어 교안작성 및 학습지·교과제작 활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그 밖에도 국내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그림, 연극, 마술, 놀이·게임을 활용한 수업 등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체험 수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나의 수업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되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 질 때 필요한 교안작성법과 교수법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상담과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7일차인 23일(일)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울 광장시장, 동대문 DDP,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쌈지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서울 곳곳 도시탐방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가자 전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을 알리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어와 역사 교육은 물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우수한 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와의 공동 개최식 및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이렇게 해서 무국적자가 된 한인들에게,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일단 직장에 들어가도 급여, 진급, 휴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했다. 대개 한인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노동영웅' 등의 호칭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무국적자로서 당하는 설움에 복받친 한인에게 '국적을 주겠다'며 다가온 것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청년 한인의 대학 진학과 직장, 결혼 등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1950년대 후반 무렵 한인 2세들이 성인이 되어 국적과 신분증을 받고 대학 진학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선전요원을 대거 사할린으로 파견해 포섭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때는 2세뿐 아니라 1세 중에도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라도 가야 하루라도 빨리 고향땅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가도 남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심지어 북한에 유학 간 청년들의 소식이 끊기거나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한인들은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소련 국적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무국적자가 겪는 차별도 차별이지만, 한국을 동경하는 반공산주의자로 찍혀서 좋을 것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무엇보다도 무국적자 신분으로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무국적자 한인의 수는 1959년 당시 49퍼센트(약 2만 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21퍼센트(7천6백여 명)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대부분 무국적자였던 한인 1세의 사망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될 만한 두 가지 소송의 시작

위에서 정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사할린 한인의 국적 선택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일본과 북한과 소련으로 국적을 바꿔가며 살 필요도 없었을 테고,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김명자 씨의 국적 확인소송은, 바로 이런 점에 의문을 품고 사할린 한인 문제를 주시하던 한국 변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소송 자체는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준비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은 2009년 지구촌동포연대(KIN)의 발의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이 만들어지고 그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과거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결합하면서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정정훈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는 직접 사할린에 찾아가 한인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실사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들을 이제껏 방치해 온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국적 확인소송'과 '위로금 지급소송'이 시작되었다.

위의 두 소송에서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사할린 한인의 '국적' 문제다. 국적 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사할린 한인이 어찌하여 러시아 국적을 얻거나 혹은 무국적자로 살아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할린 한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옳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계속)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국내 면접 진행!

7월 7일(금), 서울서 12개국 20개 한상기업 인사담당자와 63명 지원자 참석 예정

현장 면접 후 즉시 선발, 최종 인턴 대상 17일부터 국내 사전 교육 진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사 재단)은 7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면접을 진행한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한상기업에게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50명의 국내 청년을 선발해 해외 한상기업에 파견하게 된다.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 세계한상대회에서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 간 연 1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발전해 올해는 연간 3회로 그 횟수를 늘렸다.

지난 4월에 진행된 2기 면접에서는 최종 36명의 인턴이 채용돼 현재 각 국의 한상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 중이다.

이번 3기 인턴 채용 면접에는 12개국 20개 한상기업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63명의 인턴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면접 후 즉시 선발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7일부터 4박 5일 간 국내 사전 교육을 거쳐 해당 한상기업에서 6개월 간 인턴십을 진행한다. 또한, 인턴기간 동안 매월

1백만 원의 지원금과 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국내 청년 실업난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재단에서도 올해 한상 인턴십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청년들이 한상 인턴십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8월 18일부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4기'에 참여할 한상기업을 모집하고, 9월에 인턴지원자 신청을 받아 10월에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면접을 통해 최종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민족 뿌리 찾아 모국 방문한 재외동포 청소년, '2017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평창서 개막

48개국 419명 재외동포 청소년 참가한 가운데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서 막 올라

7일간 모국의 사회·문화·역사·전통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 마련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역별 체험과 참여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의 사회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만나며 한민족 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201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이하 Teens Camp)가 12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뮤직텐트에서 48개국 419명의 재외동포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막을 올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이충재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OKFriends 자원봉사

자와 국내 청소년 200여명 등이 함께 했다.

개회식은 학생들을 환영하는 지도자들의 환영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주철기 이사장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 이충재 사무총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철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모국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예술을 배

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좋은 경험을 가지고 거주국의 각 분야에서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모든 한인의 자랑이 돼 주길 바란다"며, 또한 대한민국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사무총장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민족의 뿌리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글로벌 문화 공동체로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개회식에 앞선 11일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상상하라! 당신만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임스 최 주

한호주대사의 주제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인 13일부터는 군산, 아산, 울산, 목포 등 9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농촌체험, 지역문화이해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

지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모인 참가자들은 16일(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된 열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다음 날 오전에는 파주 임진각 DMZ에서 'Peace Korea, DMZ 자전거 평화대행진'과 '한반도 지도 만들기' 카드섹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Абахай умер в сентябре 1643 года, поэтому император Шуньчжи был возведён на престол в пяти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Реальную власть взяли в руки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и и соперники в борьбе за престол — князя Доргонь и Циргалан, назначенные принцами-регентами. Талантливый полководец и волевой, умный политик Доргонь (титул — «князь Жуй») вскоре забрал себе основные рычаги власти, а в 1644 году понизил соперника до звания «регент-помощник», став фактически прави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а.

В Китае с 1628 года бушевала крестьянская вой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встанцев — Ли Цзычэн — разбил все посылавшиеся против 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войска, взял Пекин и провозгласил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а Шунь». Един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силой разваливавшейся династии Мин оставалась «Восточная армия» У Саньгюя, стоявшая против маньчжуров и прикрывавшая проходы в Великой стене. Желая избежать кровопролития, совет повстанческих вождей в Пекине предложил У Саньгюю признать новую власть и династию государства Да Шунь.

У Саньгуй увидел свой шанс: если бы он разгромил повстанцев, то стал бы регентом при малолетнем императоре династии Мин. Но для этого требов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маньчжурами, и У Саньгуй сам примчался в ставку Доргоня. Его встретили как желанного союзника. 27 мая 1644 года у Великой стены состоялось генеральное сражение,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о до 4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оргонь приказал У Саньгюю бросить в бой все его силы, чтобы измотать крестьянскую армию. В решающий момент боя из-за рядов армии У Саньгюя, оглябая её правый фланг, на поле появилась маньчжурская конница Доргоня, стремительно врезавшаяся в боевые порядки повстанцев. Неожиданный и сильнейший удар свежих сил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авалерии смял ряды крестьянской армии. После короткой схватки с маньчжурами она дрогнула, начала отходить и вскоре обратилась в бегство.

В самый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Доргонь не разрешил У Саньгюю даже подойти к Пекину, а приказал, обойдя столицу, спешно преследовать армию Ли Цзычэна, покинувшего Пекин. Сам же регент с частью «знамённых» войск без лишнего шума 6 июня проник в Запретный город. С подходом новых «знамённых» войск маньчжуры установили власть над всей столицей, стали скапливаться во Внутреннем городе, высялая оттуда китайцев и усиливая повсюду охрану. Всем жителям Пекина было приказано обрить головы и оставить косу на макушке, что означало подданство государству Цин. Доргонь объявил, что столица последнего переносится в Пекин.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Шуньчжи привезли в Пекин, и 30 октября 1644 года повторно провозгласили императором. Китайский престол был просто упразднён: маньчжурский император не взойшёл на китайский трон, а превратил Китай в составную часть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уже находясь на маньчжурском престоле. Доргонь объявил о благоволении к бывшим чиновникам и военачальникам династии Мин. Тем из них, кто признавал и поддерживал власть Цин, давались чины и звания в но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ппарате. Всех прочих призывали поддержать новую династию в целях общей борьбы с повстанцами. Землевладельцам и купечеству гарантировалась защита. Всем, кто раскается, покинет лагерь «разбойников» и перестанет их поддерживать, было обещано прощение. Крестьянам обещали снижение налогов. Сельскому и город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маньчжурский регент сулил покой и порядок.

Эта гибкая политика и умелая пропаганда возымели успех в северных провинциях — зоне Крестьянской войны 1628–1647 годов. По своей исконной религии Доргонь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были шаманистами, однако с момента вторжения в Китай сразу же объявили себя рьяными сторонниками и защитниками конфуцианства, стремясь тем самым привлечь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мин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помещиков, интеллигенцию и простой народ.

В целом завое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Китая прошло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Цин малой кровью. Войска У Саньгюя, Шан Кэси и других полководцев-китайцев здесь встречали самое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режде всего со стороны чиновников, помещиков и вообще богатых людей. Помещичьи дружины, отряды сельской самообороны во главе с землевладельцами всячески помогали полководцам и «знамённым» войскам бороться с «разбойниками» и наводить «порядок и спокойствие» в своих уездах, округах и областях.

Обосновавшись в Северном Китае, новая династия оставила в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минские ставки основных налогов, но отменила введённые в конце Мин тр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налога: «ляодунский», «карательный» и «налог для обучения войск». Этим маньчжуры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купили нейтралитет со стороны крестьянства и помещиков. Последние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получили гаранти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своих владений. На этой основе стал складываться союз маньчжур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феодалов, в массе своей сохранивших земли, чины, звания и должности либо получивших новые посты в ц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ппарат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перв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ись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

Впервы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ись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ое лето".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 обладатель 10 дана тансудо,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Нам Ин До.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ринял первые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одном ковр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бое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кикбоксинг, ММА, тхэквондо МФТ, всестилевое карате. Всего 40 человек.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к участникам и почетным гостям обратился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фестивалей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пуляризации боевы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 на Сахалине.

— Я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Сегодня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лучшие бойцы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красивые поединки.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тес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островных федераций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личество занимающихся с каждым

днем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К тому же у дет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ореи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ых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ах, — отмет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 Я рад побывать в России, причем впервые. Нам интересно, как боевые виды искусств развиваю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уровень бойцов очень высокий.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у вас тоже появился такой вид единоборств, как тансудо,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Нам Ин Д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поединков стал бой по ММА. Оба бойца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свой путь в этом виде единоборств, но, как оказалось, это им не помешал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захватывающий поединок. Он продлился вместо двух раундов — три.

Участники и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аждый год. В них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и приезж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сильнейших на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В Белгороде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WTF среди кадетов.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почти 700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4 лет из 58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члены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блестяще проявили себя, завоевав пять медалей.

— Все наши медалисты включены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мы заняли седьмое место.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Раньше так высоко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венстве сахалинцы не забирались, — поделился приятной новостью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ис Ким.

Первой на ковер вышла Эмилия Ли из Корсакова.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29 кг ее соперницами были 26 спортсменок. В первом раунде она оказалась сильнее Дарины Гуськовой из Татарстана. Затем в упорнейшем поединке сломила сопротивление Яны Коготковой из Рязани (13:12). Четвертьфинал сложился довольно легк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спортсменки. Она добилась убедительно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над Марией Карюкиной из Иваново (21:1). В полуфинале Эмилия одолела Валерию Данилову из Саратова (3:1). В финале Елене Гушле из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удалось превратить победную серию островитянки, и Эмилия Ли стала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Успеш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Эмилии словно прида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ил нашим спортсменам, 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ни они не раз срывали



аплодисменты зрителей.

Егор Федо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весе до 41 кг (48 участников) одержал четыре победы подряд. Поражение в полуфинале лишило его надежд на титул победителя. Тем не менее есть повод для гордости. Егор —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первенства страны.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Александр Ц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ять раз принимал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победой в поединках. В финале он проиграл Шамилю Магомедову из Дагестана и поднялся на вторую ступень пьедестала почета.

В весе до 37 кг (51 участник)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 Чан Хен Чер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н одержал несколько убедительных побед, но в полуфинале уступил будущему победителю первенства Даниилу Яхненко из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И все же,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стала хорошим подарком к дню рождения сахалинца.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 из островитян проявил себя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ыступавший в категории свыше 65 кг. В первом поединке он сломил сопротивление Даниила Волкова из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19:4). Затем не испытывал особых проблем в поединке с Дмитрием Монастырским из Ставрополя (26:2). В полуфинале Георгий добился победы над Давидом Ибрагимовым из Осетии (17:15), а в финале не пропустил ни одного удара от Вячеслава Горбцова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2:0).

— На тренерском совет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обладатели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ыступят на первенстве мира в Шармль-Шейх (Египет). К этому турниру,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будет готовиться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А серебряные призеры получат путевки на первенство Европы в Венгрии. В число тех, кто выступит на этих состязаниях, включены Александр Цой, Эмилия Ли и Чан Хен Чер, который ранее завоевал именную лицензию, став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World Taekwondo Presidents Cup в Греции, — подвел итог Денис Ким.

Победителя и призеров первенства страны подготовили тренеры Сергей Ли, Денис Ким и Надежда Со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обсудили глобальные и двусторонние проблемы

7 июля в рамках проходящего в Гамбурге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Мун Чжэ Ина 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ходе беседы, продолжавшейся порядка 50 минут, они затронули, в част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блемы.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провокации Пхеньяна – это угроза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о и всей Азии, сказ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н отметил, что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должно решать её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и важная роль в её решении принадлежит Росс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что ракетная и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ят весьма остро, и для их реш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действовать прагматично и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Москва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признае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выразив поддержку усилиям Сеула вернуть Пхеньян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ежде всего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С этой целью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ригласил сво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г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ентябре и будет посвящён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Мун Чжэ Ин пригласил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сетить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д подготовкой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Евразийс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юзом.



США пересмотрят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ашингтон уведомил Сеул о начал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ересмотру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на торговых переговорах Роберт Лайтхайзер.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ересмотр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после чего они станут «более честными» – один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пересмотру торговых условий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в Вашингтоне, отметил Лайтхайзер. По его словам, с момента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рост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наблю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экспорт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оваров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ША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нижении торгового дефицита, который удвоился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в сил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твердило получение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едстоящем пересмотр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на торговых переговорах через американ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 Сеуле.

KOTRA представило стратегию экспорта на развивающиеся рынки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представило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экспорта на основе рынков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умент был обнародован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11 июля в ходе форума на эту тем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60 экспертов по отраслям, иностранные покупа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 агентстве указали, что для экспорта автозапчастей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сегодня являются рынки Ирана, России, Индии и Мексики. Касательно косметики были отмечены рынки США, Японии и Бразилии.

В Сеуле будет создан музей,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блеме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Сеуле будет создан музей,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блеме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Чон Хён Бэк, посетив пансионат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Нанумы Чип»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на сказала, что данный объект станет местом напоминания о нарушениях прав человека, к которым приводит война. По её словам, проблема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отныне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РК и Японии, но всего мира. (RKI)

МИГРАЦИЯ ИЛИ РЕПАТРИАЦ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26).

В 2000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б иммиграции и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го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ло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 корейцев Китая и СНГ. При принятии закона к понятию «зарубежны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были отнесены лица, имеющ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бывшие граждан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вшие гражданство какой-либо другой страны. В 2005 году была принята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лица, отказавшиеся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с целью избежать службы в армии, не могли быть отнесены 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инувшие страну д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948), и их потомки не были отнесены 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при принятии такого решения стало желание избежать ослож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НР, в которой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2 млн.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2003 году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нал та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республик бывшего СССР и Японии, и не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ы. В 2004 году к Закону были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и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были признаны вс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инувшие Корею до 1948 года.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держивали выполнение этого закона, опасаясь, как осложнений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НР, так и негативных изменений на рынке труда страны.

В 2005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дрена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ах СНГ.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 по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ей с «постсовет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ализует программы по их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посещ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российски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 правовой легализации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ибывающих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с их компактным поселением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Ростовской и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ях, а также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Согласно проведенной в 2009 году реформе Закона

о выборах, в проводи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выборах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и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Численность избирателей, получивших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только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НГ, превысила 9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в годы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в Корее.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обусловленными сокращением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за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Поиски выхода и ситуации, разработка 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ложены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урирует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Департамент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консульской служб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Отдел политики по делам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Юридические пра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 визам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гулируются целым рядом законов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законе и страховании здоровья», «Закон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начальном и среднем образ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м законе по пенсион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аховании на случа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травм», «Законе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Законе о поддержк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мешанных) семьях»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меет сложную систему прав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епатриантов, приравненных в правах к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и зафиксированную множеством закон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юрисдикции раз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Это созда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сложность для репатриантов, не владеющих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не знающих ни правил, ни процедур оформления надлежащих документов.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В Пучхоне открылся X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13 июля в городе Пу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лся X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до 23 июля.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с 1997 года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в Пучхо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екки» низкобюджетных и независимых фильмов,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и площадки для знакомства любителей кино во всем мире с работ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Откроет мероприятие фильм Room No.7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режиссёра Ли Ён Сына. В этом году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289 кинокартин из 58 стран мира. Из них 109 картин были сня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режиссерами. (KBS World)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стал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по числу заявок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зентаций проектов на ВЭФ-2017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мерены представить 30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II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Больш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ложений подали лишь Приморье (31),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26).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з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федер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ступили 148 заявок. Ведомству теперь предстоит выбрать из них самы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Дан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форума. 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 этом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их идеях авторитетной аудитории - ведущим экспертам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найти партнеров и инвесторов. Форум сейчас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рупнейш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и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з Росси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Ассоци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ил Сахалин, относятся к различным отрасля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ферам туризма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этапе заявки аккумулировали дв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рамках единой концеп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десь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 и гостевых домов, СПА-центра, ресторанов, создание зон для семейного и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ыха. На форуме потен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орам предложат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эти идеи.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при участии партнеров может быть построен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с традиционной японской баней онсэн. В отеле будет 26 одно- и двухместных номеров категорий «стандарт» и «люкс». А для ба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создание нескольких купальных зон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 термальными водами из минерального источника. Еще один проект в сфере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 по созданию СПА-отеля - предлага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на базе санатория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Обширный список предло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подготовил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азной степени проработки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проекты нескольких заводов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руб,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клееного бруса.

Выпуск нового для региона стройматериала недавно осво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клееного бруса являются его экологичность и высокая теплоемкость - она позволяет эконом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обогреве помещений. Суть проект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увелич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да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до 15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год. Этих объемов хвати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кры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а.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который потребуетс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30 заявленных для презентации проект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ценивается в сумму 41,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тся единый справочный телефон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встрече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нтона Зайцева с акти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ОНФ).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исполнения «майских» указов и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в регионе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достижениях и проблемах.

Как отметил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ОНФ Константин Тюкавин,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нередко поступают жалобы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некорректное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 Для создания теплой и благоприятн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не нужны деньги и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уж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люб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Врачи перестали улыбаться пациентам, позволяют себе повышать голос и грубить, руководители больниц совершенно не общаются с медицинским персоналом, не вникают в их з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поднять этот вопрос на уровн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ажно напомнить врачам, что лучшее лекарство от болезней - это улыбка и доброе отношение, -

подчеркнул Константин Тюкавин.

Поступают вопросы и от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в основном о повышен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 Н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 бюджете на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ных плат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мы должны выйти на показатель, заявленный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майских» указах. Уровень зарплат составит для врачей - 200% от уровня средне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регионе, 100% - для среднего и млад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 рас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поднятый на встрече - отсутств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выдаваемых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 Эта проблема актуальна для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для решени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даны поручения о разработке детальных планов-графиков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таких участках,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водя итоги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отметили, что чаще всего недовольство людей связано с низкой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ю. Сахалинцы попросту не знают на как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создании в регионе единого справочного телефона, позвонив на который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лную и 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всех вид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месте.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единого телефона будет запуще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Ежемесяч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будет продлена до 2020 года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островны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Думы.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виде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касается семей, в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ются трое и более детей (14772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третье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 Это одна из весом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днако по закону данная выплата должна была прекратитьс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е сохранения был поднят глав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ложение вынесли в Думу и парламентарии единогласно его поддержали. Закон вступит в силу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егион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Кроме того, депутатами была также одобрена поправка в закон об увеличении размера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родителя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школьной формы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с 6 000 до 10 000 рублей.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смогут семьи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ов уже в август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свыше 120-т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касаются многодетных. Таких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пяти тысяч. К примеру, благодаря компенсационным выплатам,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пять и более детей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с этого года такие семь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умму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Более того, многодетные, решившиеся на четвертого малыша и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асширении жилплощади, такж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сумму на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В среднем около шести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емью.

Напомним,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действовать ежемесячные денежные выплат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лноценным питанием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рех лет и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а также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без учета доходов семьи. Введен ряд новых льгот д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ов. Это - адрес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до 30 000 рублей, а такж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корзина на семью 1 раз в квартал.

Третий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построенного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озвед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6 году подве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профи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отрасли.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это 2228 организаций разных фор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2016 году объем подрядных работ составил 73,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отрасли занято 15 800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87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 годом.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адим Залозный,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работников произошл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а счет уменьшения дол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трудовой политики. На-

против, числ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увеличилась на 780 человек.

В 2016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329,1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105 процентов к уровню 2015 года), в том числе 126,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идирует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На ее долю пришлось 30 процентов построенного в ДВФО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тоимость найма -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В 2016 году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емь таких дом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почти 8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250 квартир). Сегодня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347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заверш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2012 года, запущенн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 к 2020 году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есь аварийный жилищный фонд.

В 2016 году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лечебный корпус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амбулатория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со службой экстр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десять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для Лицея «Надежда» в Холмске, детские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 Тымовск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объекты. Продолж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ластной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реконструкция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школ с целью ликвидации практики проведения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во вторую смену. Для этого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десять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ервые - в Долинске и селе Тунгор - введут в стро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коллегии обсудили ряд вопросов, сдерживающих развитие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на островах, в частности,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ново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2017-2018 годов с участием глав администрац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пециалисты сферы энергетики и ЖКХ.

В ходе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прошедшего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н завершился позже обычного - 1 июля. Это связано с низкими температурами воздух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осенне-зимний период прошел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без серьезных аварий.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йоны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систем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к ново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ны еженедельные селекционные совещ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выездные проверки,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и оказ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 началу осени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224 котельные, 148 объектов канализации, заменить десятки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трасс,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Одна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 создание 45-суточного запаса твердого топлива, - отмети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дежда Мошенцева.

В целом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в районах проходи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Однако,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в ряд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на идет с существенным отставанием от графика. До сих пор не начаты работы по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му ремонту жилого фонда, тепловых сетей,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подстанций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 Хотел бы напомнить всем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что на вас возложена ответственная задач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объектов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к безаварийному прохождению предстоящего отоп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на раскачку нет!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докладывать о которой вы будете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вплоть до получения паспортов готовности.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начать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без каких-либо задержек и пройти его без срывов 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и работы штаба,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재외동포재단에서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이주사를 국내에 소개하고, 내국민에 대한 재외동포 인식제고를 위해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재외동포들의 즐거운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아래 -

1. 공모 주제

가. 개인 소장 사진전

- 개인 소장 사진전
 - 나와 내 가족의 이주사(정착 당시, 과정, 현재 사진)
 - 재외동포 가족 사진(1세대~현 세대까지, 3대 이상의 재외동포가 함께 찍은 사진)
 - 기타 재외동포의 정착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과 사연
- 예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착 스토리와 각종 에피소드

○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 러시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지역의 과거 고려인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

◆ '개인 소장 사진전' 개최 목적은 재외동포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한민사회의 과거 사진을 수집하여 이민 역사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외에도 선대나 이웃으로부터 전해 받아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참여사진은 법적 문제 발생 소지(저작권, 사용권 등)가 없는 사진이어야 함.

◆ 참여작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사진전시회' 용도로만 활용되며, 수상작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한 사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나. 사진 공모전

- 재외동포 삶의 현장
 - 직업(사업), 학교 일선의 재외동포의 활발한 활동 모습
 -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활약상, 공공외교 활동
 - 이민사회 속 재외동포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상
 - 재외동포로서 잊지 못할 순간
 - 자랑스러운 세계한민
 - 모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순간
 - 내가 바라본 세계 속의 한인
 - 해외에서 만난 나의 인연들
- 세계 속의 한국
 - 세계 각 지역별 동포사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 세계 속에서 발견한 한국의 美
 - 세계 속의 한인들의 거점이 되는 공간(코리아타운, 한인회관, 한글학교, 기타 커뮤니티 등)
-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 나에게 대한민국은 □□□이다.
 - 새로운 대한민국에 □□□을 바란다.
 - ※ □□□을 표현한 포토메시지

2. 응모자격

- 응모자격 : 국내 · 외 모든 재외동포
 - 국외 : 모든 재외동포
 - 국내 :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재외동포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7. 5. 25(목) ~ 7.25(화) / 24:00, 한국시간 기준

※ 5.25(목)부터 접수 가능

- 수상작 발표 : 2017. 9월 / (예정)

【재외동포재단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 게재】

4. 응모 방법

가.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코리아넷(www.korean.net) 공지사항 및 팝업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수

◆ 아날로그 사진 : 원본사진을 스캔하여 (300dpi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수상작은 추후 수상작 원본 필름 제출 필수

◆ 디지털 사진 : 2,000×2,800pixel 이상 권장, 파일용량 2MB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 공모전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에 한함.
- 응모자는 중복 응모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한 주제의 상위성적만 인정함.
- 요청 자료(촬영일시 및 장소, 사진제목, 사진설명 등)는 필수이며 누락될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문의

○ 사업 관련 : photo@okf.or.kr, 82-2-3415-0146(동포단체지원부 김수빈 직원)

○ 시스템 관련 : 82-2-3415-0197(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5. 우수작 대우

- 시상 : 13명
-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입선(11명) 각 30만원
- 우수작 국내전시
- 수상작 13개 작품과 우수작 100여개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전시

6. 기타 유의 사항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시상 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지게 됨.

- 표절 및 타인 대리 출품
-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저작권 · 초상권 · 사용권이 있는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주최측은 행사 홍보를 위하여 출품작을 전시회 및 행사 홍보물 제작, 코리아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최종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전송권, 배포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전호의 계속)

문법 Грамматика

Лингвистика. История язык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них веков. 중세 국어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них веков является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анн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языка определяется периодом с конца X по конец XVI вв. По временному признаку традиционно различают два вид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ранний и поздн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редних веков раннего периода относится ко времен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ролевства Корё, поздний - к периоду государства Чосон. Началом эпох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считается событие, связанное с переносом столицы королевства Корё из города Кванчжу, в город Кэгён (개경, сейчас - Кэсон 개성).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послужило тому, ч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а из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перекочевал в его центральную часть. После падения королевства Корё столица вновь образов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Чосон из Кегёна была перенесена в город Ханянг (한양, соврем. - Сеул). Однако это событие не оказало особого влияния на развитие языка, в силу того, что это перемещение произошло в пределах территории действия одной диалектной групп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проходило именно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з двух этапов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наиболее примечателен второй - поздний этап. Связа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оизошли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в большей мере повлияли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брел свою полноценную письменную форму, отображающую полноту его характерных черт. Здесь идет речь о появ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хунмин чоньым или хангыль). Тогда же появляются мног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писанные уж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м письмом, а не китайскими иероглифами, не дающим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фонетическом составе языка. Многие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ожив до наших дней, стали ценным материалом для понимания природы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редних веков и современным корейским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как на фонетическом, так и на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Здесь мы приведем лишь ряд фонетических отличи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ого периода употреблялись некоторые согласные и гласные графемы (буквы), которых уже не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личие графем указывает и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отображаемых ими звуков.

Далее приводятся таблицы с указанием фонет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Система согласны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ㅂ - [p]	ㅃ - [pʰ]	ㅅ - [s]	ㅆ - [sʰ]	ㄱ - [k]	ㅋ - [kʰ]
ㅍ - [pʰ]	ㅑ - [tʰ]		ㅈ - [tʰ]	ㅋ - [kʰ]	
ㅅㅅ - [ps]	ㅅㅆ - [st]	ㅆㅆ - [ss]	ㅆㅈ - [stʰ]	ㅅㅅ - [sk]	ㅅㅅ - [sx]
ㅂ	ㅅ	ㅅ	ㅅ		
ㅁ - [m]	ㄴ - [n]			ㅇ - [ŋ]	
	ㄹ - [l]				

Система согласны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Монография)

ㅂ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нижний или точечный [a])

Система гласны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них веков. (Дифтонги)

Нисходящие (полугласные [j] и [w] находятся в начале)	Восходящие (полугласный [j] находится в конце)
ㅏ, ㅑ,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ㅛ, ㅑ, ㅓ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и на детей более 20 тысяч рублей

Участника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Спорт спасёт жизнь», которая прошла 9 июля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на лечение детей более 20 тысяч рублей.

Деньги собирали для Виталия Кима и Антона Аршанова. Виталию три года. У него ДЦП, спастический тетрапарез. В октябре 2016 года он проходил курс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Преодоление», лечился в Китае. Сейчас семья готовится к повторному курсу лечения в Китае.

Антону Аршанову четыре года. У мальчика ДЦП, гимипаретическая форма, правосторонний гемипарез. Врач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ему пройти курс психокоррекционных процедур с участием дельфинов в Анапе (с 26 августа по 12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считает, несмотря на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линики не всегда могут помочь в определённом виде лечения, или родителей не устраивает то или ино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где лечение их ребенка полностью оплачи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о. Поэтому и идет сбор средств на лечение за рубежом.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депутат пообещал обратить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создать резервный внебюджетный фонд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экстренных случаев лечения больных детей.

일본 NHK, 사할린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 마지막 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 촬영

일본 NHK TV 방송사 대표들이 제 2 차 세계 대전 마지막 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삽입할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다큐멘터리는 1945년 8월 남사할린(그 당시 일본의 가라후토)에서 소련군과 일본군 간

에 펼쳐졌던 전투에 대한 내용으로 7월 6일 사할린주역사고문서보관소에서 일본 촬영팀의 작업이 이뤄졌다. 고문서보관소 직원들은 여러 질문에 답하며 고문서보관소에서 촬영 기회를 제공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일본방송 기자들은 종전 이후 보관을 위해 주립고문서보관소에 남겨진 가라후토 시대의 기록물들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제79호 보병사단 사진사로 1945년 남사할린 해방전쟁에 참전했던 계.페. 소콜로브의 문서사진집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주 문화부는 1945년 8월에 소련 군인들의 업적을 남기거나, 격전지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들은 2007년부터 사할린주역사고문서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전했다.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NHK сним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фильм о последних дн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понской телекомпании NHK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для сбора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е войдут в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последних дн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Речь пойдет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которые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тогда губернаторство Карафуто в составе Японии)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и и япо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6 июля 2017 года японская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работал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ки архива ответили на ряд вопросов и предостав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ъемки в архив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пон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интересовали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о, которые после войны были передан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а хранение.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также вызвала коллекция фотодокументов Г.П. Соколова (1915-1994 годы), который в 1945 году участвовал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будучи фотографом 79-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Уникальные снимки, сделанные в разгар сражений, запечатлевшие подвиг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 2007 года хранят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микульт.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6회 졸업생 이길자 씨가 75세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동창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웨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